

티베트와 몽고의 만남에서 본 싸까*

李政奐**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싸까 씨족의 유래
3. 뽌지다와 꺄과 그리고 몽고와의 만남
4. 뽌첸과 낭첸
5. 싸까파의 몰락
6. 맺는말

1.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티베트와 몽고가 만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싸까파에 관한 것이다. 본 논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까파가 형성되기 전까지의 티베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티베트는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티베트 최초의 왕인 나치첸보(藏經顯^ノ覇^ノ繼^ノ繼^ノ職^ノ)가 호카에 티베트 최초의 궁전인 읍부라캉(息^ノ繼^ノ棚^ノ賴^ノ辦^ノ察^ノ)을 건설하고, 7세기에 송첸감보(狀^ノ緊^ノ繼^ノ繼^ノ勅^ノ職^ノ)가 티베트를 통일하면서 당시 그 영토는 현재 중국의 운남과 사천, 청해, 감숙, 신장 지역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굴된 티

* 현 티베트의 중요한 교파중의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싸까 혹은 싸까파라 호칭한다. 싸까파는 티베트어로 싸까바라고 하는데, 싸까 뒤에 '바'가 붙어 명사나 대명사가 된다. 티베트인들은 습관적으로 게루바, 싸까바, 까귀바 등을 '바'를 생략한 게루, 싸까 등등으로 부른다.

** 충북대학교 연구교수

조와 같은 세속적인 세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닌, 승려집단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발점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싸까(ཤཱཀཾ)는 원래 “회백색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싸까파가 이곳에 사원을 지으면서 싸까라는 지명이 파를 상징하게 되었다. 싸까파가 티베트에서 유명해 진 것은 원대에 티베트를 대표하여 몽고와 교류를 시작한 싸까뻘지다(sa skya pandi ta)¹⁾에 의해서였다. 싸까뻘지다는 당시 덕망이 매우 높아서 티베트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때 마침 몽고의 영토확장으로 인하여 티베트까지 넘보던 몽고는 티베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치 방법으로 싸까뻘지다를 선택하였다. 싸뻘(싸까뻘지다)은 몽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티베트의 기존 세력들을 설득하여 몽고에 귀순하게 만들었다. 싸뻘은 그 대가로 티베트에 대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싸까세가는 그 세력을 티베트 전역에 떨치게 되었는데, 후에 팍바가 쿠빌라이의 스승이 되고 원의 국사가 되면서 싸까의 세력은 극에 달하였다. 팍파는 쿠빌라이의 신임을 얻어 몽고문자를 창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로 몽고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티베트불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으며 몽고 왕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티베트의 각 교파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까귀과(ཀཱུ་གྲི་ཀ་)의 까마바시(karma pakshi, 1204-1283)가 쿠빌라이의 남송정벌 때 동행 요청을 거부하여 10여년의 옥살이를 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당시 까마바시는 쿠빌라이의 동생인 아릭부케의 요구를 받아 들여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후에 쿠빌라이가 아릭부케와의 왕위 쟁탈에서 승리하자 자신을 거부하였던 까마바시를 응징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쿠빌라이는 까마바시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죽이지는 못하였다. 까마바시를 곁에 둘 수 없었던 쿠빌라이는 결국 싸뻘과 같이 “창왜(藏僇)에 와 있던 팍바를 포섭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싸뻘을 만나려 했으나 쿠빌라이가 황제에 올랐을 때에는 싸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티베트 각 교파가 활발하게 몽고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

1) 일부 현대 티베트어로 기입할 수 없는 고대 티베트어나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외래어 등은 로마문자로 표시하였다.

족의 성은 쨌(중오라는 뜻)으로 불리어졌다.”⁴⁾

이것으로 보아 첫 번째 싸까족의 전설은 이들을 쨌보와 같이 신성한 존재로 여겨 일반인들과는 차이를 두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권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싸까과의 선조 중에 쨌빠보체(緡緡緡緡緡緡緡)는 일찍이 치쑹데쨌 때 내상(內相)을 역임한 적이 있었고, 쨌루이왕보(緡緡緡緡緡緡緡)는 티베트 최초의 승려들인 쨌미미뉘(緡緡緡緡緡緡緡)⁵⁾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싸까 씨족이 처음 활동했던 곳은 분산되어 있었다. 예를들어 쨌루이왕보의 동생 도제린보체(緡緡緡緡緡緡緡)의 후예는 아리의 마위(緡緡緡緡緡緡緡), 아리의 쿵탕(緡緡緡緡緡緡緡)과 쌍(緡緡緡緡) 등지에 살고 있었다. 후에 이들은 라뻬넨즈탕의 야창(緡緡緡緡緡緡緡)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야창을 《가궤익창첸모》에서는 야창(緡緡緡緡緡緡緡)이라고, 《西藏王臣記》⁶⁾에서는 야창(緡緡緡緡緡緡緡)이라고 적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여덟 가지가 좋다는 뜻으로 위기게개(緡緡緡緡緡緡緡)라고 불렀다. 싸까씨족이 선택한 곳은 농사와 목축이 용이한 곳으로 쨌씨족의 첫 번째 땅(緡緡緡緡緡緡緡)이 되었다.

이 지역을 가궤익창에서는 쨌바게의 아들 쨌바제궁닥젠이 발견하였으며, 쨌씨 최초의 땅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쨌바게는 쨌싸잠부쨌(緡緡緡緡緡緡緡)을 아내로 삼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무예가 뛰어나고 신통하였다. 또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신체는 건강하였다. 한 번이라도 그를 본 사람은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서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쨌바제궁닥젠(緡緡緡緡緡緡緡)이라고 지었다. 어느날 부

4) 5)와 같은 글. pp.171-172.

5) 삼예사원에서 출가한 티베트 최초의 7인을 가리킴.

6) 티베트어로 《緡緡緡緡緡緡緡》이라고 한다. 저자는 제5대 달라이라마인 아왕랍쌍가초로 1643년에 완성하였다. 원 제목은 《緡緡緡緡緡緡緡》(설역의 땅에 친신인 왕과 신하가 내려온 주요 역사—절기가 원만하고 청춘의 기쁨에 노래하는 두견의 소리)로 너무 길어 간단히 줄여서 “궤기땀땀지기궤궤루양”이라고 한 것이다.

샤까린(緬緙~罽縠~轉緙~緙~芴敗~易繼)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보인다.¹²⁾ 이 때 라쟁(緬~幹縠)과 개라캉(義緙~輶~緙縠)을 공격하여 수많은 승려가 살해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인 《개배가뉘(賢者喜宴)》¹³⁾에서는 1240년 도다가 유목지역인 쪽츄카(德徽~緬~緙)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는 데로 살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후에 유명한 까담파의 라쟁(達~幹縠)사원¹⁴⁾과 라사 이복의 팬위(緬緙繼~泉緙)에 있는 개라캉(義緙~輶~緙縠)¹⁵⁾을 불사르고 500여명의 승려들을 사살 했다. 이것이 티베트와 몽고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그러나 《靑史》¹⁶⁾에서는 티베트에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은 도다가 아니라 미리치(嚴~重~緙)라고 전한다. 또 사원을 불태우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도다에 의해 앞의 두 사원이 파괴된 것에 비해 지쿱사원은 무사하였는데¹⁷⁾,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쟁아자바중네가 술법을 부려 하늘로부터 석비를 내리게 하여 몽고군을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신빙성은 높지 않다. 다만 당시에 파괴된 사원이 모두 까담파(계룩파의 전신)라는 사실이다. 까담파는 아디샤에서 쯤뉘바로 이어지는 규율을 중시하는 파로 기존의 닝마파나 까귀파, 싸까파하고는 다른 길을 지향하였는데, 까담파의 사원만이 파괴된 것은 암암리에

12) 班钦索南查巴著, 黄颢译, 《第13史(較緙~輶縠~緙縠繼~緙~緙縠繼~緙)》, 西藏人民出版社, 2002, p.35 참조.

13) 《解解(緙緙~緙緙繼~較緙)》. 저자는 바오줄락첵어(結語緙~輶~緙緙繼~緙~緙緙繼~緙)이고 1564년에 완성되었으며, 목각본은 모두 791장으로 되어있다. 이 목각본이 호카(현 산남지역) 로자(輶~緙縠)의 라롱사원(輶~興縠~緙緙繼)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로자교법사(輶~緙縠~緙縠繼~緙縠繼)》라고도 한다. 이 책은 고대 전설에서부터 중국, 돌궐, 토욕혼, 우전(于闐), 서하, 몽고 등지와 인도, 네팔, 캐시미르, 대식(이란) 등지를 다루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정치, 종교, 법률, 역사, 문화, 의학, 음악, 건축, 회화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티베트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4) 쯤린보체(緬緙繼~易繼~緙~緙), 즉 쯤뉘바(緬緙繼~較緙~緙~義緙~緙緙繼~緙緙繼~緙緙繼)가 1057년에 라쟁줄라캉(達~幹縠~緙緙繼~緙緙繼~緙緙繼~緙緙繼~緙緙繼)을 세움. 이 사원은 또 라쟁베기줄라캉(達~幹縠~緙緙繼~緙緙繼~緙緙繼~緙緙繼)이라고도 한다.

15) 나남도제왕축(所~緙繼~輶~緙~緙緙繼~較緙)이 1012년 팬위에 건립한 사원.

16) 《템테웬보(較緙~輶縠~緙緙繼~緙)》. 저자는 쉐누배(緙緙繼~緙~緙縠)로 1476에서 1478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 책은 다량의 한문, 티베트문, 산스크리트어로 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 특징이다.

17) 이때 닥롱사원은 안개로 몽고군을 물리쳐서 무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닥롱사원은 1180년에 닥롱탕바(緙緙~鳥縠~緙縠繼~緙)가 지었다. 지쿱사원은 1179년에 폼바직덴곤보(緙緙~緙~緙緙繼~緙緙繼~緙緙繼)가 지었다. 두 사원 모두 까귀파에 속한다.

수계(受戒)를 받고, 비구계(比丘戒)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뻘지다가 63세 때인 1244년에 몽고 쿠덴왕의 초청을 받고 뻘지다의 조카인 팍바(額爾德格)와 차나(察納)를 수행원(차치(察齊)으로 삼아 싸까를 출발해 몽고로 향했다. 《新紅史》에서는 뻘지다가 63세 때 몽고의 쿠빌라이와 쿠덴왕이 특별히 도타체(都塔赤)를 파견하여 초대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쿠덴왕과 쿠빌라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더욱이 뻘지다가 초청되어 간 곳은 쿠덴왕의 관할지였다. 쿠덴왕은 우구데이의 아들로 툴루이 소르카타니의 아들인 쿠빌라이하고는 경쟁관계였으며 후에 쿠빌라이가 승리하면서 쿠덴왕은 역사의 발자취에서 사라졌다. 당시 뻘지다와 동행한 팍바와 차나의 나이는 겨우 각각 9세와 5세였다.

이들은 2년여에 걸쳐 드디어 1246년에 쿠덴왕의 영지인 창왜(藏窩)에 도착하였다. 당시 쿠덴왕은 형인 구육이 황제가 되는 쿠릴타이(Quriltai)대회에 참석하고, 다음해인 1247년에 涼州로 돌아와 뻘지다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뻘지다는 쿠덴왕을 만나기 위해 모두 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 때 뻘지다는 쿠덴왕으로부터 제자상 장로(藏窩)라는 직책을 얻고 쿠덴왕의 스승이 된다. 처음에 이들의 만남은 정치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후대에 몽고에서 티베트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뻘지다는 싸까 법왕자리를 35년간 역임한 1251년 70세의 나이로 량주취바테라강(涼州)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사원 안에는 뻘지다의 구동채덴(牙) 유골을 모셔둔 탑, 靈塔이라고도 함)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생전에 많은 서적들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화집인 렉바세배린보체데(與)는 원대 때 이미 몽고어로 번역되었으며, 후대의 몽고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뻘지다는 티베트가 몽고와 유혈사태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19) 티베트 사서에는 창왜라고 적혀 있는데, 창왜는 '북방'이라는 뜻이다. 즉 티베트인들의 涼州에 대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涼州에 대해서 막연히 '북방'이라는 뜻의 '창왜'를 사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f. 부근의 지역을 묶어 하나로 만들어 1만호로 삼는다.²³⁾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두 번째 관정을 받고 그 대가로 채카쑤(綽察綏, 세 지역)을 헌납하였다. 즉 소위 말하는 위장감쑤(綽察綏, 위장감 세 지역)을 가리킨다. 이 세지역은 하나는 차위(纏兒, 아리쿱탕(纈察綏, 아래와 쪽라까오(倉兒, 아래 등의 불법지구(綽察綏, 또 다른 하나는 쪽라까오 아래와 황하하곡河曲(朕, 위의 검은 머리 사람지역(纈察綏, 마지막으로 황하하곡 아래와 한족 지역의 白塔(義, 위쪽의 유목 지역을 가리킨다. 쿠빌라이는 이어서 각 지역에 뽌첸(緜陳, 이 관리를 두었는데, 이 관리는 싸까와 몽고의 칸이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²⁴⁾

4. 뽌첸과 낭첸

이렇게 티베트와 몽고의 만남은 싸까뽌지다와 쿠덴왕으로부터 시작되어 팍바와 쿠빌라이로 이어지면서 이들간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위에서 다루었듯이 몽고의 쿠빌라이는 싸까의 팍바에게 티베트 전체를 통솔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싸까는 몽고의 힘을 빌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고, 몽고는 이를 통해 티베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몽고는 티베트를 좀 더 세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뽌첸과 낭첸이다. 최초의 뽌첸은 역사서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샤까쌍보(考敗, 인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²⁵⁾ 샤까쌍보가 죽은 후 최초의 낭첸인 꺄까쌍보가 뽌첸을 동시에 역임하였는데, 팍바와 의견대립이 심했으며,

23) 大倉宗巴班覺桑布 著, 陈庆英 译, 《가제익창첸모(汉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p.151, p.152 참조.

24) 같은 책 p.152 참조.

25) 같은 책 p.199에서 싸까뽌지다는 몽고의 쿠덴왕을 만나러 가면서 싸까쌍보를 싸까의 총관사(總管事)에 임명하였고, 팍바에 이르러서는 쿠빌라이에게 삼로군민 만호의 명호(名號)와 인(印)을 하사받고 처음으로 뽌첸에 임명되는 장면이 나온다. 같은 책 p.201에는 뽌첸을 역임했던 인물명이 나오는데, 싸까쌍보가 최초의 인물로 나와 있다. 또 중국어 번역본 《新紅史》 38쪽에도 싸까쌍보가 최초로 뽌첸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보인다.

팍바는 편까쌍보의 뽕첸 역임 중에(대략 6년 후) 연달아 상권(經緊~經輻繼), 축보강까와(輓敬~職~勅緊~經總繼~繼), 창린(筵緊~身繼) 등을 뽕첸에 임명하였다. 후에 팍바가 죽은 후 쿠빌라이는 그 책임을 물어 군대를 보내어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²⁶⁾

뽕첸을 역임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사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으나 샤까쌍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뽕첸이 되는 과정은 《紅史》, 《新紅史》, 《靑史》, 《漢藏史集》 등의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新紅史》에서 쿠빌라이가 “위장 삼로군민 만호의 인(印)(經綱緊~敬總緊~報~經繼~弟~高繼~股繼~經經緊~絡以~經繼~辦)”을 샤까쌍보에게 주며 그를 뽕첸에 임명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²⁷⁾

다음은 《新紅史》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정리 한 것이다. 중임을 포함해 모두 26명이다.²⁸⁾

샤까뽕첸(崇~男~經職繼~勅繼):

샤까쌍보 續敗~經類緊~職

편까쌍보 責繼~經敬繼~經總緊~職

상권 經緊~經輻繼

축보강까바 輓敬~職~勅緊~經總繼~續

창린바 筵緊~身繼~續

괘첸 經賢繼~敬腫繼

췌왕 敬腫繼~經經緊~

26) 팍바의 죽음과 관련하여 《新紅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편까쌍보가 뽕첸이 된 후 린첸강라장(身繼~勅繼~勅緊~腰~轉緊~) 및 사원의 벽등을 건조하였다. 팍바에 의해 편까쌍보가 해임 된 후 그 뒤를 이어 상권, 축보강까와, 창린 등이 뽕첸에 임명되었다. 팍바가 43세 때에 침(顯朝繼崇)에서 뛰어난 학자를 초빙하고, 추미첸첸모(純~股敬~翻崇~顯朝繼~勅繼~腸, 추미대법회)를 거행하였다. (삼년 후)팍바는 46세 때에 임직하였다. 제자는 팍바가 뽕첸 편까쌍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논쟁하였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쿠빌라이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이에 쿠빌라이는 명령을 내려 공고군을 티베트에 보내어 낭매(羅緊~關繼)의 차로중(策~奇繼~轉緊~)을 부수고, 뽕첸(편까쌍보)을 살해하였다." 《新紅史》, p.38.

27) 《新紅史》 중국어 번역본, p.38 참조.

28) 《新紅史》 중국어 번역본 pp.38-40 참조. 뽕첸을 역임한 인물에 대해서도 사서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西藏王臣記》에서는 20명, 《紅史》에서는 26명, 《漢藏史集》에서는 27명으로 나와 있다.

되어 있고, 《가꺠의창첸모》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으나 2명이 중입하여 모두 30명으로 보고 있다.³¹⁾

먼저 역대 낭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싸싸낭첸(崇〓男〓繼繫〓翺繼):

뀐까쌍보	責繼〓緜敬顯〓鑑類繫〓臆
웬누배	敬膺繼〓臆〓緜續緜
뀐웬	責繼〓敬膺繼
뉘즘배	軌繼〓美鑑〓緜續緜
로꺠	胫〓羌崇
샤루뉘세	經〓局〓緜臆繼〓置崇
뉘바린첸배	軌繼〓繽〓男繼〓翺繼〓緜續緜
줍쌍	美鑑〓鑑類繫〓
뀐족쌍보	緜臆繼〓緜翺敬〓緜類繫〓臆
잠개	顯續緜〓義緜
뉘바린첸배	軌繼〓繽〓男繼〓翺繼〓緜續緜(중입)
뉘바링모	軌繼〓繽〓男繫〓腸
쵸꺠뀐세	考〓鑑端繼〓翺繼〓置崇
뀐까꺠	翺繼〓緜敬顯〓顯翺緜
웬꺠자바타	臆繼〓鑑端繼〓粉敬崇〓繽〓緜續
웬꺠작바타	臆繼〓鑑端繼〓粉敬崇〓繽〓緜續(중입)
린첸삼두엔샤	男繼〓鑑崇緜〓韋〓緜精繼〓續
남카개첸	繼緜〓緜解顯〓義緜〓緜躋繼
뀐린	翺繼〓男繼
븨꺠	顯翺緜〓枝鑑崇
남카바두엔샤	繼緜〓緜解顯〓繽〓韋〓緜精繼〓續

는데, 주로 토번의 왕통, 싸까, 까담, 까꺠, 꺠주, 지꺠, 체마 등의 각 교꺠의 원류 및 세가와 관련된 역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31) 체꺠뀐까도꺠(緜緜〓繽〓責繼〓緜顯顯〓軌〓端) 저, 陈庆英 周润年 译, 《뺠뺠마보(較鑑〓較繼〓緜顯顯〓臆, 紅史)》, 西藏人民出版社, 1988, p.49 참조. 大仓宗巴·班觉桑布 著, 陈庆英 译, 《緜〓靚緜〓臆繼〓緜繫〓翺繼〓腸(汉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pp.201-202 참조.

쌍보배	顯類繫 ^ㄱ 𣎵 ^ㄴ 緹緹緹
취개	翻崇 ^ㄱ 義綬
생계개첸	系繫 ^ㄱ 鞞 ^ㄴ 義綬 ^ㄴ 緹緹緹
세립외췌두엔샤	賀崇 ^ㄱ 顯緹 ^ㄴ 罪緹 ^ㄴ 羸顯 ^ㄴ 華 ^ㄴ 緹轄緹 ^ㄴ 續
관촉린첸	緹緹緹 ^ㄱ 緹翻 ^ㄴ 鞞 ^ㄴ 鞞 ^ㄴ 翻 ^ㄴ 緹
팍바빠쌍보	顯緹顯崇 ^ㄱ 續 ^ㄴ 緹緹緹 ^ㄴ 顯類繫 ^ㄴ 𣎵
건까분	鞞 ^ㄱ 緹顯 ^ㄴ 顯朝 ^ㄴ 緹
건까팍	鞞 ^ㄱ 緹顯 ^ㄴ 顯緹顯崇
립조팍	顯緹 ^ㄱ 顯輪 ^ㄴ 顯緹顯崇

뻘첸과 낭첸은 몽고와 티베트가 밀착되면서 몽고의 티베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치적 수단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 되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들 직책은 진적으로 싸까의 아래에 있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싸까가 티베트를 통치하고, 몽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몽고는 이를 통해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였다.

나아가 몽고는 티베트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통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뻘첸과 낭첸을 두어 싸까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몽고와 티베트 사이에서 중요한 서신이나 공문 등을 원활하게 전달시키는 한 방법으로 티베트와 한족 지역(중국)에 역참(驛站, 顯緹鞞^ㄱ 鞞^ㄴ)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또 역참을 건설한 후에도 다시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몽고의 호구조사는 군사적 목적을 띠고 시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티베트와 중국 국경 경계선부터 라사까지 모두 27개의 역참을 설치하였다. 역참은 1269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쿠빌라이는 1260년에 집권하였는데, 그 후로부터 7년 후인 1267년에 몽고군 케케다(罷顯^ㄱ 罷^ㄴ 釋)를 티베트에 파견하여 담바리바(顯緹鞞^ㄱ 續^ㄴ 鞞^ㄴ) 등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뒤인 1269년에 티베트에 역참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먼저 도매(緹轄^ㄱ 顯緹^ㄴ)³²⁾에 7개의 역참이, 도패(緹轄^ㄱ 鞞^ㄴ)³³⁾에는 9개의 역참

32) 압도(緹^ㄱ 鞞^ㄴ)를 가리킴. 압도는 티베트의 삼대 병언지역의 하나로 현 청해성과 사천, 감숙 등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위장에는 11개의 역참이 각각 건설되었다. 위장(緡朝蒙[○]徽緡蒙[○])은 라사와 시가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키며, 위에 쪽(緡徽), 삭(緡徽), 지와(緡緡[○]緡緡), 샤포(緡[○]緡), 꿈(緡[○]緡), 관싸(緡緡緡[○]緡緡緡), 가와(半[○]緡) 등의 7개의 역참이 세워졌고, 장에는 닥(緡徽), 총뒤(緡緡[○]緡緡), 다룽(緡緡[○]緡緡), 좀다(緡緡[○]緡緡) 등의 4개의 역참이 세워졌다. 이 역참을 관리하는 관원을 참뵈(緡緡[○]緡緡)이라고 하였는데, 역참 주위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은 역참에 귀속되어 관리되었다.

이 외에 쿠빌라이는 1288년 티베트를 관장하는 기구인 총제원(總制院)을 두었는데, 후에 선정원(宣政院)으로 불리어졌다. 이 기구는 주로 티베트의 불교와 군사 등을 관리하였으며, 책임자는 제사(帝師)와 싸까법왕의 참여 아래 칸에 의해 임명되었다.

5. 샤까의 몰락

빠진다와 쿠덴왕, 콕바와 쿠빌라이로 시작된 티베트와 몽고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368년 원이 망하면서 동시에 티베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싸까파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의 말기인 14세기 중엽에 티베트에서는 집권파인 싸까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주로 몽고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의 형식을 띠었으며 싸까에 반대하는 지쿱사원(緡緡[○]緡緡[○]緡緡[○]緡)의 지지를 받았다. 결정적으로 원이 멸망하면서 이러한 세력들은 점점 거대해졌는데, 이 중에서 장츄개첸(緡緡[○]緡緡[○]緡緡[○]緡)이라는 인물이 이들을 이끌었다. 장츄개첸은 호카(緡緡[○]緡緡, 지금의 산남)의 파모족(緡緡[○]緡緡) 지역의 한 세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302년에 태어났으며, 젊었을 때에는 한 때 싸까파의 문하에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싸까파와 의견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싸까파

33) 티베트의 삼대 방언지역의 하나인 캄(緡緡[○]緡緡)을 가리키며, 현재 행정구역인 일부 청해성과 사천, 운남, 서장(西藏)의 일부(참도緡緡[○]緡緡 주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티베트와 몽고의 만남에서 본 싸까 571

와 단절을 하고 말았다. 그의 씨족은 지쿱사원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사원은 그의 명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실 싸까와 지쿱사원 사이의 분쟁은 1290년에 한 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몽고는 군대를 보내어 싸까파를 지원하여, 빼모탕(緜緜緩腸鐵漿) 부근에서 지쿱사원의 군대를 격퇴시켰다. 이와 같이 싸까파와 지쿱사원은 그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36년 창츄개첸은 드디어 티베트의 야룽지역의 만호장(羈縻職繼)이 되었다. 이 러므로써 티베트의 정권은 싸까에서 파모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후로 티베트는 14세기에 종카바(輶樂解績)에 의하여 티베트 불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게루파(緜羈鳥徽樂績)가 탄생하였다. 게루파는 15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그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다. 이러한 와중에 티베트에 산재해 있던 싸까파 대부분의 사원은 게루파로 귀속되었다. 몽고는 원이 멸망한 후에도 그 세력은 티베트와 青海省, 新疆 등지에 분포하면서 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게루파는 몽고의 세력을 이용하여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6. 맺는말

본문에서 싸까의 유래와 싸까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싸까가 어떻게 몽고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티베트와 몽고는 각각 어떤 입장을 하고 있었는지 짚어 보았다. 또 어떻게 해서 몽고와 티베트가 유사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싸까파는 먼저 싸까의 시조인 환바게에 의해서 싸까 씨족이 형성되고, 사원이 세워지면서 싸까라는 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시 티베트의 외부세계는 티베트와 달리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었다. 몽고에 의해 티베트 동쪽의 인접국이었던 서하가 멸망하고, 이어서 금도 멸망하였으며, 남송도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였다. 이에 비해 티베트는 전쟁과는 먼 딴 세상처럼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하지 못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런 와중에 몽고는 티베트를 점령하기

위해 먼저 도다를 파견하여 티베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몽고가 어느 한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취하는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었다. 당시 티베트는 통일정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티베트의 각 파가 형성되어 가는 상태였으며, 지방의 세력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숭상하여 불교의 사회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티베트의 모든 권력이 사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몽고는 티베트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티베트를 대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고승을 찾았는데, 그 승려가 바로 싸까파의 싸까뻬지다였다. 뻬지다는 몽고에 가서 몽고의 실상을 확인하고, 티베트의 지방 세력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티베트가 이를 받아들여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싸까뻬지다에 의해서 교류가 시작된 몽고와 티베트는 팍파에 이르러 절정을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몽고의 쿠빌라이는 몽고와 같은 군사적 목적을 띤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권한을 팍파에게 부여 하였다. 이렇게 되자 티베트의 모든 권력은 팍파가 속해 있는 싸까파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몽고와 티베트는 각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서로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싸까가 비록 종교적인 안정을 위해서 몽고와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는 티베트가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몽고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세를 통해 싸까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티베트는 몽고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후에 몽고가 망한 후, 종교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이어져 내려왔다. 샤머니즘이 성행하였던 몽고가 현재의 티베트불교가 보편화된 것은 이러한 만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이 망하고 명을 거쳐 청대에 들어와서도 이들의 관계는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청이 티베트와 몽고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몽고와 티베트가 종교와 문화적으로 더 친숙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싸까의 소개와 몽고와 티베트의 관계 등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다. 본 논문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싸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티베트 문화

大,主要是政治上的影响,相反,西藏对蒙古产生了宗教上的影响。西藏对蒙古宗教方面的影响开始于萨迦派,并得以进一步巩固。通过宗喀巴的宗教改革产生的格鲁派,成为西藏和蒙古的关系更为密切的契机。尤其是由噶举派传承下来的班禅和达赖喇嘛这两个化身的诞生,使西藏和蒙古的关系走的更近了。特别是到了达赖喇嘛五世,西藏和蒙古的关系已经超越了宗教的范畴,而是在政治上,基于互相的需要,其关系得以进一步强化。也就是说,在宗教上由萨迦派开始对蒙古产生影响,这一影响由格鲁派完成。前面也提到,在格鲁派对蒙古进行宗教上的影响以后,基于政治上的因素一直存在。这表明,蒙古和西藏的关系不单纯是宗教上的关系,而是从政治目的角度开始的。

本论文将简要地探讨蒙古经过怎样的渠道与西藏接触,并形成相互的关系这一问题。这也可以看做是对于现在蒙古和西藏的具有密切关系的一种考察。现在西藏对蒙古宗教上的影响是众所周知的事实。另外,对此达赖喇嘛的存在产生了绝对的作用,由此带来了所谓格鲁派的教法被世界了解的结果,蒙古的藏传佛教也从这一角度上被理解。但是西藏佛教传播到蒙古的确定性的开端并不是格鲁派,而是萨迦派。蒙古和西藏在历史上之所以关系变得密切也是因为萨迦派。

本论文之所以把对蒙古产生巨大影响的萨迦派作为考察对象,理由之一,是萨迦派对历史上西藏和蒙古关系的形成起了决定性的作用;理由之二是,笔者认为西藏的政教合一体制由萨迦派开始。

当时蒙古扩张势力的野心也向西藏延伸,西藏的萨迦派以此为契机,使自己的势力得以巩固。也就是说,蒙古通过代表西藏的萨迦派有效地统治了西藏,而萨迦派在蒙古的庇护下扩张了自己的势力。在这个过程中,萨迦派成为统合政治和宗教的绝对优势教派,同时西藏的政教合一体制也开始萌芽。因此可以说,萨迦派在形成西藏和蒙古的关系方面起到了重要的作用,进而对西藏的宗教和政治产生了巨大的影响。

本论文可以概述如下:第一章主要通过萨迦的由来阐述萨迦派是如何形成的;第二章主要探讨了萨迦派的班吉达和他的侄子八思巴是如何促进西藏和蒙古的关系形成,又如何在宗教和政治上掌握西藏,以及当时蒙古的立场;第三章简单地指出了本钦和囊钦的设置源于蒙古的意志,分析了蒙古对西藏实质性的、具体的影响;第四章对随着蒙古的灭亡,西藏的绝对权力持有者萨迦派也随着没落的背景进行了说明。

關鍵詞 : 萨迦 西藏 蒙古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